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시간의 속도는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 2023년의 시간은 제가 따라잡기 벅찰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다른 한해를 바라보는 시간 앞에서 **땅끝 씬 한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1. 치앙라이 비전교회

지난 주일(12월 24일)에 **전도초청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두 달간 기도하며 성탄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감사하게도 비전교회가 시작된 후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행사를 발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바라기는 초청되어 온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의 비전교회 슬로건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대하 20:12)입니다. 치앙라이 비전교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돌 지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 부분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영적, 양적 부흥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2. 파드아 초등학교

25일 성탄절에 파드아 초등학교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러 비전교회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갔습니다. 지난 번 소식에서 말씀드렸지만 파드아는 350가구나 되는 큰 마을이지만 성도가 4명 밖에 없습니다. 반면 무당이 4명이나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파드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74명, 교사는 10명입니다.

비록 약 20명의 학생들이 지역 운동회에 나가고 없는 상황이었지만 50여 명의 학생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라고 의미도 모르면서 산타복장을 하고 학교에 온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드아 학교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작은 불씨가 아이들 마음





속에 자리잡기를 기도합니다.

3. 성도신학교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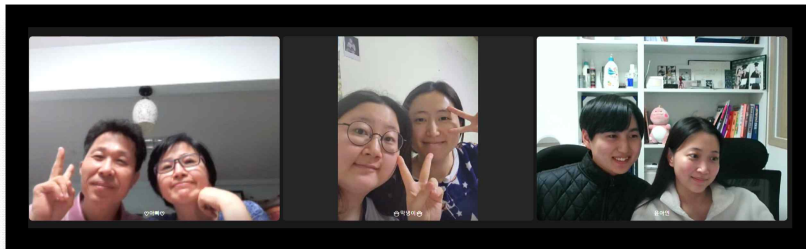


성도신학교 학생들이 26일 여러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성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도신학교에서 저는 이번 학기 「모세오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처음 학생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어설퍼 보였었는데, 한학기가 지나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매일 묵상으로 아침을 열고 말

씀을 배우며 오전 오후를 보내고 기도로 저녁을 단습니다. 반복된 생활이 8개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의 믿음과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져 감을 보게됩니다.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 지길 계속 기도부탁드립니다.

3. 가족들 이모저모



매주일 가족모임에 이제 한 명이 늘어 6명이 모임을 갖습니다. 한 명이 더 늘어난 만큼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로 풍성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둘째 하림이가 서울지역 임용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1월 23-24일 2차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림이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림이가 이 시대에 귀한 믿음의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막내 민하는 12월 27일부터 24년 1월 6일까지 라오스 단기선교 중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인이와 용진이는 1월 초에 열흘간 휴가를 내어 태국으로 옵니다.

저와 이금숙 선교사는 지금 선교사 비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국 종교성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아직 몇몇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곧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하 20:12)



땅 끝에서 윤상호, 이금숙(아인, 하림, 민하) 선교사

2023년 12월 31일